

2025

[https://newautopost.co.kr/issue-plus/article/149702/?feed\\_id=19080&\\_unique\\_id=678c39dba7ffd&utm\\_source=Twitter&utm\\_medium=feed&utm\\_campaign=FS\\_Poster](https://newautopost.co.kr/issue-plus/article/149702/?feed_id=19080&_unique_id=678c39dba7ffd&utm_source=Twitter&utm_medium=feed&utm_campaign=FS_Poster)

## 법인 차량 등록량 눈에 띄는 감소세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1억 원 이상의 수입차는 총 6만 2,520대이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1% 급감한 수치이다. 벤츠, 포르쉐, 랜드로버, 아우디, 롤스로이스 볼보, 벤틀리 등 대부분 럭셔리 수입차 브랜드가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그중 벤틀리는 50.6%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포드 44.3%, 벤츠 40.4%, 롤스로이스 33.7%가 그 뒤를 이었다.

해당 자료에서 눈 여겨볼 사항은 법인 차량의 감소세이다. 개인 대비 법인 구매량의 감소 수준이 확연하다. 지난해 개인 수입차 등록 대수는 2만 7,000여 대로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법인 수입차 등록 대수는 5만 1,000여대에서 3만 5,000여대로 크게 줄었다.

2025 2월

## “연두색 번호판 달기 창피해서?”...작년 수입차 구입가격 8년 만에 하락

<https://v.daum.net/v/20250205140608249>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수입차를 살 때 지불한 구입가격이 8년만에 하락했다. 국산차 구입가격은 소폭 상승해 둘간 격차는 줄었다. 수입차 시장 위축에 따른 할인 경쟁과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연도색 번호판’ 효과가 수입차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5일 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한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수입차 신차 구입가격(옵션포함)은 7593만원으로 7848만원이던 2023년 대비 255만원(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구매가 하락은 디젤게이트 파문이 일었던 2016년 조사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보면 코로나 국내 발생 첫해인 2020년 수입차 구입가격은 전년 대비 5% 상승했다. 코로나 보복 소비 풍조가 나타난 2021년에는 6% 올랐고,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 사태가 빚어진 2022년에는 가장 큰 폭인 12% 급등했다. 2023년에도 2% 올랐지만 작년엔 떨어졌다.

수입차 가격 하락 이유는 무엇보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이 꼽힌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이나 탈세 문제를 막는다는 취지로 작년 1월부터 출고가 8000만원 이상 신차에 적용되고 있다. 국산차에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주목도가 높은 수입차가 주요 타깃이 됐다는 평가다.

연두색 번호판은 수입차 구입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으로 ‘리스+렌트+구독’ 방식이 2019년 11%에서 작년엔 3%로 크게 감소했다. 법인차량 구입 때 세제 혜택을 위해 주로 쓰이던 방식이라 직격탄을 맞았다는 평가다.

국산차 가격 상승률이 수입차를 앞질러 가는 부분도 특징이다. 지난 5년간 수입차가 24% 상승할 때 국산은 33% 올랐다. 이에 따라 국산 대비 수입차 가격은 1.89배에서 1.76배로 낮아졌다.

2024년 11월

국토부, 전수조사 착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02301>

2024 8월

<https://v.daum.net/v/20240830103230550>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가 시행된 후 고가 법인차 등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 식별을 용이하게 만들어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자동차 정보 업체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집계한 1~7월 법인차 신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8,000만 원 이상 차량의 등록 대수는 2만7,400대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27.7% 급감한 수치로, 감소 폭이 최근 5년 새 가장 컸다. 같은 기간 법인차 전체 등록 대수는 24만1,172대로 전년보다 4.2% 줄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는 고가 법인차의 등록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는 스포츠카를 주로 만드는 포르쉐의 등록이 두드러지게 줄었다. 전년 대비 47% 감소한 2,219대가 등록됐다. 고급차의 대명사로 통하는 롤스로이스(89대)와 벤틀리(123대)도 각각 44.4%, 65% 감소했다. 기업 임원 차량으로 널리 쓰이는 제네시스 G90 모델과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차량의 경우 전년보다 각각 45.6%, 63.9% 줄었다.

2024 4월

[https://www.ytn.co.kr/\\_ln/0103\\_202404150919383588\\_018](https://www.ytn.co.kr/_ln/0103_202404150919383588_018)

지난달 수입차 법인구매 비중이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8천만 원 이상의 수입 법인 차 등록 대수는 3,868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636 대비 1,768대 감소한 수치다.

올해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면서 법인 차 등록 대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8,000만 원 이상 수입 법인 차 등록 대수는 지난 2월에도 3,551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동월

(4793대) 대비 1,242대(25.9%) 줄었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고가의 법인 차 등록 대수가 줄면서 전체 수입차 판매에서 법인 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달(2만 3,840대)보다 6.0% 증가한 2만 5,263대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법인 차 등록 비중은 28.4%(7천179대)로 집계됐다.

법인 차 등록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지난해 법인 차 비중은 39.7%를 차지했다.

2022 1월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858>

'억' 소리나는 슈퍼카의 불편한 진실...탈법적 사치 막아야

9일 한국수입차협회가 밝힌 지난해 한 해 '1억 원 이상 수입차' 등록대수를 보면 6만5148대로 1년 전 4만3159대보다 50.9% 늘었다. 지난해 수입차 전체 등록 대수는 27만6146대로 전년(27만4859대)보다 0.5% 증가에 그쳤지만, 고급 수입차 등록대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1억 원 이상 수입차가 전체 수입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5.7%에서 지난해 23.5%로 높아졌다. 지난해 1억5000만 원 이상 수입차 판매는 전년 1만817대보다 75.9%나 급증한 1만9030대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1억 원 이상 수입차' 판매 현황을 보면 메르세데스-벤츠가 2만8815대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BMW(1만8622대), 포르쉐(7852대), 아우디(5229대), 랜드로버(1111대) 등으로 이었다.

출처 :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

업계는 1억 원 이상 수입차 판매가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친환경차·RV(레저용 차량) 판매가 늘어나면서 수입차 시장에서도 고급화가 이뤄진 탓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1억원 이상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수입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3만6243대로 전년 대비 218.9% 증가했다. RV는 2020년 2만1866대에서 2021년 3만4907대로 59.6% 늘었다.

1억 원이 훌쩍 넘는 고급 수입차는 누가 사는 걸까. 속내를 들여다 보니 여전히 고급차의 절반 이상은 '법인차'였다. 지난해 등록된 1억 원 이상 수입차 중 법인차는 4만2627대로 전체의 65.4%가량이었다. 2020년에는 2만9913대로 69.3%였다.

법인차 중 인기 차량은 포르쉐였다. 7852대 중 5007대가 등록됐다. 벤틀리는 506대 중 405대, 람보르기니는 353대 중 300대, 롤스로이스는 225대 중 205대 등이 법인차로 등록됐다. 모두 수 억원에서 수 십억 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이른바 '슈퍼카'다.

출처 :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

2020

**법인 명의 슈퍼카 끄는 의사, 3년새 68% 급증**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9006>